

IMD 세계경쟁력보고서와 한국의 노동시장

김정우·곽난희*

I. 머리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IMD)에서는 지난 1989년부터 매년 5월 60여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세계경쟁력보고서(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를 발표한다.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세계경쟁력 순위는 29위로 2004년보다 6단계 상승했다.¹⁾ 순위상승에는 과학 및 기술경쟁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글은 IMD 세계경쟁력보고서의 노동시장 관련항목들의 경쟁력을 살펴보면서 다른 시사점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IMD 보고서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측정오류로 인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과소평가 여부, 그리고 경쟁력 미진분야에 대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항목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김정우=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kjw@kli.re.kr).

곽난희=한국노동연구원 객원연구원(nhkwak@kli.re.kr).

1) IMD 이외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서는 2000년부터 약 100여개 국가에 대해 국가경쟁력을 조사하여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03년 GCI(Growth Competitiveness Index)에서 18위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에는 29위로 순위가 많이 하락하였다. 10위권 이내 국가로는 핀란드, 미국, 스웨덴, 덴마크,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 입장에서 분석하는 IMD와는 달리 WEF에서는 경제성장론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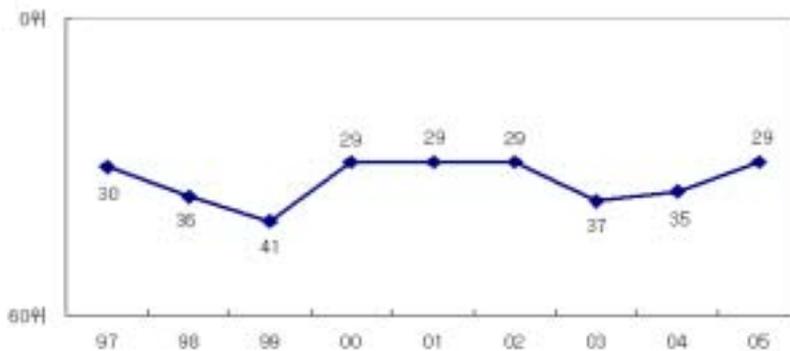
II.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개요 및 평가방법

1. IMD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세계경쟁력 순위

IMD 보고서에서 세계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적 여건들을 창출,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국가별 기업경영환경과 기술 혁신 등을 통한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51개국, 9개 대상 지역²⁾에 대해 경제운영 성과(77), 정부행정 효율성(73), 기업경영 효율성(69), 발전인프라(95)의 4개 분야를 대상으로 각각 314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순위로 발표하고 있다.

2005년도의 순위를 살펴보면, 2004년에 이어 미국이 종합 세계경쟁력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가 각각 2, 3위의 세계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³⁾. 특히,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과 경쟁관계를 갖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로서 한국의 잠재적인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1] 연도별 한국의 세계경쟁력 변화 추이



주: 김대욱(2005), 「IMD의 2005년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산업연구원.

2) Bavaria(Germany), Catalonia(Spain), Ile-de-France(France), Lombardy(Italy), Maharashtra(India), Rhone-Alps (France), State of Sao Paulo(Brazil), Zhejiang(China), Scotland(United Kingdom).

3) 상위 10위권 세계경쟁력을 가진 국가는 미국(1), 홍콩(6), 싱가포르(2), 아이슬란드(5), 캐나다(3), 핀란드(8), 덴마크(7), 스위스(14), 호주(4), 룩셈부르크(9)이며, ()안은 전년도 순위를 나타낸다.

한국의 경우 2005년 종합 세계경쟁력 순위는 전년도에 비해 6단계 상승한 29위를 차지하여 2002년도의 순위를 회복하였다. 1997년 이후 중국보다 뒤쳐져 있던 국가경쟁력을 회복한 것은 특징적이다. 한국의 세계경쟁력 변화 추이는 앞의 [그림 1]과 같다.

다음으로 한국의 4개 분야별 세부항목 순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4개 분야별 세부항목의 세계경쟁력 순위

(단위 : 순위)

항 목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제운영 성과	국내경제	8	18	9	35	32
	국제무역	33	37	10	32	34
	국제투자	37	34	30	54	51
	고용	9	10	4	18	8
	가격	60	25	26	56	56
	소 계	15	32	40	49	43
정부행정 효율성	공공재정	9	3	1	2	14
	재정정책	15	17	15	22	15
	제도적 여건	34	29	14	37	30
	기업관련법	44	40	24	45	34
	사회적 여건	32	31	28	59	58
	소 계	28	26	37	36	31
기업경영 효율성	생산성·효율성	30	29	15	32	42
	노동시장	35	27	19	36	26
	금융	35	29	14	40	38
	경영활동	39	29	25	39	26
	행태·가치	23	24	14	19	25
	소 계	35	27	45	29	30
발전인프라	기본인프라	35	33	16	33	23
	기술인프라	25	19	10	8	2
	과학인프라	21	10	10	19	15
	보건·확충	30	29	12	32	33
	교육	40	47	18	44	40
	소 계	26	23	30	27	23

주: 굵게 표시된 부분은 주요 노동관련 분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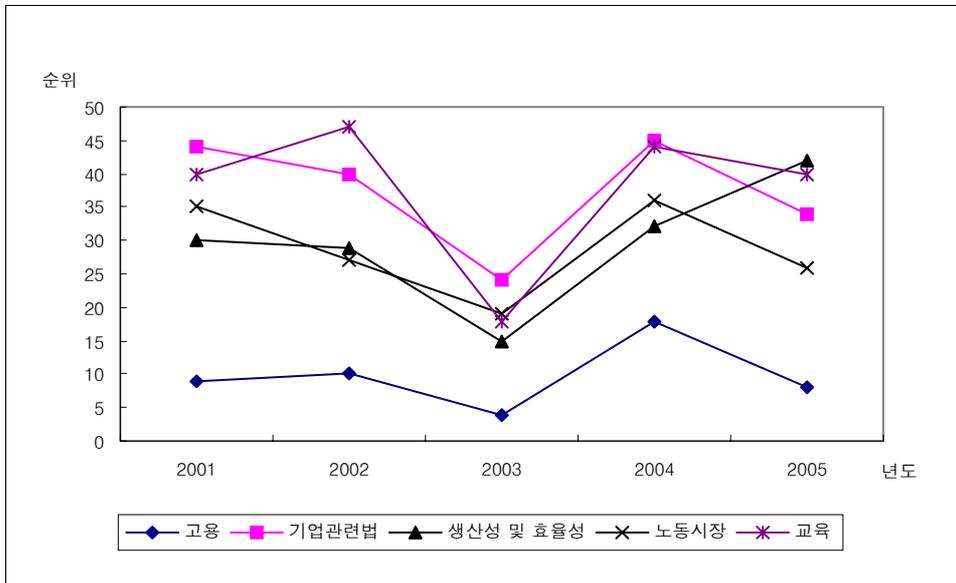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2005.

전년과 비교하여 경제운영 성과분야는 6단계(49위→43위), 정부행정 효율분야는 5단계(36위→31위), 발전인프라 분야는 4단계(27위→23위) 순위가 상승한 반면, 기업경영 효율성분야는 1단계(29위→30위) 하락하였다.

진하게 나타낸 항목들은 앞으로 살펴볼 노동시장관련 항목들로서 최근 5년간의 순위

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노동시장관련 항목들의 세계경쟁력 순위



2.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방법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는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앞의 314개 평가항목에서 나타나는 세계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57개 IMD 파트너기관(한국의 경우 산업연구원)에 의한 201개 경성자료(Hard Data)와 60여개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4,000여명의 설문조사를 통한 113개의 연성자료(Survey Data)를 이용하여 국제경쟁력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경성자료 중 128개 항목이 주된 지표로 사용되고, 나머지 73개 항목은 보조지표로 이용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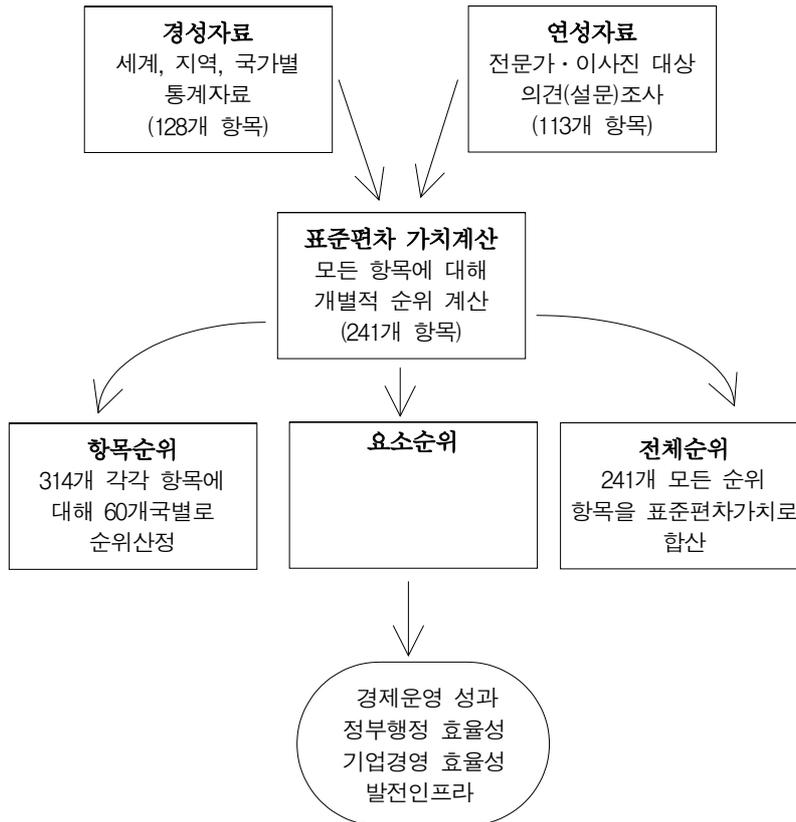
이러한 경성 및 연성자료를 이용해 241개 세부항목의 국가별 순위를 산출하고,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개 부문별로 해당 세부항목들을 표준화하여 합산함으로써 국가별 순위를 산출한다. 또한 부문별 점수를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4대 분야별 및 종합적 국가순위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성자료 형성을 위한 설문대상은 IMD의 한국파트너인 산업연구원이 선정한 400개 기업(전경련 CEO포럼 소속기업)과 IMD가 이미 조사한 바 있는 400여개 기업 등 총 800여개 기업의 경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 회수는 산업연구원측이 설문대상에 우편안내를 하고 IMD 웹사이트에서 직접 응답을 기입하는 형태

로 진행된다.)

따라서 경쟁력 순위는 주관적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정도 해당 시기 국가경제 운용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경쟁력 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열등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선·극복한다면 더 높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IMD의 세계경쟁력 순위산정 과정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4) 언론지상에 자주 기사화되는 노사관계 관련 경쟁력에 대한 항목은 “노사관계가 일반적으로 생산적입니까 아니면 적대적입니까?”(Are labor relations generally productive or hostile?)라는 질문에 대해 1~6 단계의 척도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Ⅲ. 노동시장과 관련된 항목의 세계경쟁력 순위

노동시장과 관련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경제운영 성과부문의 고용(8항목), 정부 행정 효율성부문의 기업관련법(3항목), 기업경영 효율성부문의 생산성(4항목), 노동시장(21항목), 발전인프라 부문의 교육수준(2항목) 항목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와 선진국의 순위 및 내용과의 비료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경제운영 성과부문의 '고용'

경제운영 성과부문 중 고용에 대한 경쟁력 순위는 전년도 대비 10단계 상승한 8위를 차지하였다(표 1 참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절대적 고용자수는 중국, 인도, 미국이 단연 1~3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의 고용자(취업자)수는 약 2,256만명으로 세계 1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대비로 보면 중국이 58.1%로 3위, 일본이 49.57%로 9위, 미국이 46.84%로 22위이며, 한국의 참가율은 46.80%(23위)로 절대적 고용자 규모가 비슷한 프랑스(15위), 이탈리아(17위)의 40.45%(41위), 38.93%(48위)와 비교해 볼 때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은 편이다.

고용률 증가항목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도 0.14%의 감소와 대비 금년도에는 1.89%의 증가로 21위의 순위로 평가되었다. 부문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이 8.1%, 산업이 27.5%, 서비스업이 64.4%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고,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비중이 3.25%로 세계 2위의 경쟁력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실업률 항목을 비교해 보면, 전체 실업률이 1.98%에 달하는 태국이 경쟁력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3.60%로 4위의 높은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 국가 중 미국은 21위(5.5%), 일본은 17위(4.20%), 중국은 10위(4.20%), 싱가포르 7위(4.00%)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청년실업률 항목에서 한국은 13위(10%)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실업률 항목에 있어서 한국은 0.02%의 장기실업률로 세계 경쟁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실업상태에 머무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다른 직업으로의 재취업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운영 성과부문의 세부항목별 우리나라 세계경쟁력 순위는 <표 2>와 같다.

〈표 2〉 경제운영 성과부문의 세부항목별 세계경쟁력 순위

		1위권 국가	2005
고 용		중국 (75,412만명)	16위 (2,256만명)
고용률		룩셈부르크 (67.00%)	23위 (46.70%)
고용성장률		아르헨티나 (5.61%)	21위 (1.89%)
부문별 고용	농 업	-	8.1%
	산 업	-	27.5%
	서비스	-	64.4%
공공부문 고용		싱가포르 (2.99%)	공동 2위 (3.25%)
실업률		태국 (1.98%)	4위 (3.60%)
장기실업률		한국 (0.02%)	1위 (0.02%)
청년실업률		태국 (5.83%)	13위 (10.00%)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2. 정부행정 효율성부문의‘기업관련법’

정부행정 효율성부문의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은 전년도 대비 11단계 상승한 34위를 차지하였다(표 1 참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고용·해고 및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노동 규제부문에 있어서 홍콩, 싱가포르, 덴마크 및 스위스가 1~4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우리나라는 44위의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보다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채취업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반조건과 관련하여 실업법률 항목에서는 <표 2>에서 제시된 낮은 실업률과 관련 20위의 경쟁력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외국 노동력의 고용과 관련한 이주법률 항목에서는 53위로 낮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국제적 개방이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칠레, 싱가포르, 영국이 각각 1, 3, 6위의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노동시장의 개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기업경영 효율성부문의‘생산성’및‘노동시장’

기업경영 효율성 부문은 생산성과 노동시장에 대한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해 본다.

우선 생산성부문에 있어 고용자 기준 1인당 GDP 기여도(PPP 기준) 항목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35위를 차지했다. 노동생산성(PPP 기준) 항목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가 각각 2, 3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 각각 28위, 30위, 31위인데 반해, 한국은 41위로 생산성 경쟁력이 낮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국제표준화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중소기업(50위)보다 높은 3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을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이 더욱 요구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부문을 보면, 전년도 대비 10단계 상승한 26위의 세계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장 부문의 세부항목은 크게 임금, 노사관계, 생산력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임금분야 중 총근로시간 대비 임금 및 기타 급여의 수준(제조업 기준)은 32위로서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26위, 27위, 30위와 비슷한 수준이나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위노동당 비용변화는 싱가포르, 대만, 홍콩, 한국이 각각 -9.10%(2위), -4.26%(5위), -1.20%(20위), -0.07%(27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임금수준은 39위로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이며, 기업체 경영진들의 임금수준은 16위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분야 중 근로시간은 연 2,270시간으로 세계 7위의 수준이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가 각각 1위, 4위, 15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고용자(취업자)들이 근로시간 분야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주5일제 근무 실시 등으로 인해 앞으로 근무시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관계의 적대성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이 각각 1위, 2위, 6위, 9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최하위인 60위의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의 약점 중 하나로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을 함의한다. 하지만 각주 4)에서 제시한 설문 문항과 같이 단순한 한 문장만으로 노사관계의 적대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2004년도에 IMD가 400개 기업, 그리고 당시 한국파트너인 (주)경쟁력 평가원이 250개 기업에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나 그 응답률이 13%)에 그친 것에 비하면 순위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들의 노동참가 동기수준 항목에서는 홍콩이 1위, 덴마크가 2위를 차지, 강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이 10~13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한국은 37위를 나타내고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보상 등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사분규 수준은 45위를 나타내 경쟁력이 낮은 만큼 노사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반면, 근로자 훈련분야에 있어서는 25위로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자 및 실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 항목에서는 전체 고용자수 항목과 같이 중국, 인도, 미국이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7위, 프랑스, 이탈리아가 각

5) 특히, 노사관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용자가 더 잘 응답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표본상의 문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각 15위, 16위의 순위를 보인 반면, 한국은 2,337만명으로 18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 수준이 중국은 60.45%(3위), 일본은 52.02%(11위), 미국은 49.47%(26위)인데 반해, 한국은 48.49%로 32위를 차지함으로써 경쟁력이 약간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참가율의 증가수준이 1.98%로 16위를 차지 향후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조건으로는 임시직 고용자의 비중이 일본이 4위(26%), 영국이 8위(23.29%), 미국이 23위(13.20%)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7.72%로 37위를 차지하여 경쟁력 수준은 떨어지나 비교적 안정된 고용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의 높은 경쟁력 수준에 비해 한국의 경우, 싱가포르(24위, 44.93%), 홍콩(31위, 44.38%), 대만(39위, 41.72%)에 이어 40위(41.37%)로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숙련된 노동시장에 대한 항목평가는 필리핀, 네덜란드, 덴마크가 각각 2위, 4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9위,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각각 11위, 16위, 1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32위 수준으로 약간 낮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고학력·숙련된 근로자 항목에서는 25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시아권 국가 중 홍콩과 싱가포르는 외국에 대한 개방을 나타낼 수 있는 외국 숙련근로자 및 자국내 경영진들의 해외경험 수준이 6위권 이내에 들어 높은 경쟁력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7

〈표 3〉 기업경영 효율성부문의 세부항목별 세계경쟁력 순위

(단위 : 순위)

		2004	2005
임금	임금수준	32	32
	단위노동 임금변화	34	27
	서비스전문가 임금수준	39	39
	경영진 임금수준	16	16
노동사관	근로시간	7	7
	노사관계 적대성 수준	60	60
	근로자 참가유인	42	37
	노사분규	44	45
	근로자훈련	30	25
생산부문	노동력	18	18
	노동력 비중	34	32
	노동력 성장률	47	16
	임시직 근로자	29	37
	여성노동력	40	40
	외국노동력	32	34
	숙련근로자	41	32
	Finance skills	45	46
	고학력·숙련근로자	44	25
	외국 숙련근로자 참가	42	27
	국제적 경험(고위 경영자)	5	18
유능한 경영자 수준	45	32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2005.

위, 18위에 머무르고 있다. 유능한 경영자의 수준은 32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였다.

기업경영 효율성부문 중 노동시장에 대한 세부항목별 세계경쟁력 순위는 <표 3>과 같다.

4. 발전인프라 부문의‘교육수준’

고용자의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투입과 관련이 있는 항목 중 노동시장에서 유용한 자질을 갖춘 기술자 정도는 인도, 핀란드, 칠레가 1~3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 일본은 각각 16위, 29위,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각각 9위, 21위, 30위를 차지한 데 비해 한국은 45위의 낮은 경쟁력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간 지식 및 정보의 이동은 미국이 3위,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각각 8위, 9위, 17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전년도 42위보다 21단계 상승한 21위를 차지해 긍정적인 국제경쟁력 향상이 예상된다.

하지만,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인적자원뿐이라는 믿음과는 다르게 이 부문에서 경쟁력이 기대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특히, 우리나라 대학교육 및 교육체제가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안겨준다. 즉, 정부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직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평생직업 교육체제의 마련과 기업차원에서 사내 교육훈련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항목 중 노동시장과 관련된 4분야 5가지 항목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를 살펴보았다. 전체 종합적 세계경쟁력이 29위인데 반하여, 고용부문 및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항목을 제외한 기업관련법, 생산성, 교육부문의 경쟁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과 관련된 규제가 비교적 많으며, 경직적인 노동시장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사간의 적대성 정도는 최하위 수준인데, 설문조사 분석상의 오차를 감안하여 WEF에서 발표한 순위(2004년 102국가 중 92위)와 비교해 보아도 역시 하위권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중장기적 노사관계법·제도 및 의식·관행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IMD 조사대상인 기업의 경영담당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높은 교육열과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항목

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낮게 나온 결과로 볼 때, 산·학간 지식 및 정보의 효율적인 이동이 시급히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매년 순위로 평가하는데 있어 그 한계를 감안하여 매년 발표되는 세계경쟁력 순위의 변화에 민감하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위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요인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